

문자의 주술에 탐닉하는 책벌레들

그랑빌이 그린 <책벌레>

노성두 | 미술평론가

퀸에서 공부하면서 이따금씩 이탈리아 문화 원을 찾았다. 대학로를 가로지르는 단테 거리로 접어들면 백양목이 늘어선 운하에 백조가 떠다녔다. 흰 회벽집 이층이 페트라르카 도서관. 졸업시험 주제를 단테로 잡고 한동안 그곳에 파문혀 지냈다.

미술사에 최초로 등장한 책벌레

사철 그곳을 지키는 맘씨 좋은 사서는 동양인이 그 옛날 <신곡> 구절을 몇 줄씩 외는 게 신기했던지 하루는 고본을 한 보따리 들고 올라왔다. 벌레와 습기가 파고들지 못하게 가죽장정에 차꼬를 채워 단단히 여며 둔 책들이었다. 그러나 삼사백년 세월을 수호하기엔 역부족이었던지 종적없는 벌레들이 책마다 땅굴을 승승 뚫어놓았다. 사서 할아버지는 다른 곳엔 없는 진짜 희귀본도 있다면서 투박한 손가락으로 좁쌀 만한 구멍들을 살살 문질러 보았다. 책을 망친 벌레들이 야속하고 내심 속상하기도 해서 내가 불멘 소리를 했더니 할아버지는 싱긋이 웃을 따름이었다.

할아버지 사서와의 추억을 떠올리다가 문득 <책벌레>라는 그랑빌의 작품이 떠올랐다. 그랑빌은 1842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악령'이 유럽을 배회하던 무렵, 썩 구미가 당기는 제안을 하나 받았다. 동물과 곤충의 공공생활과 사생활에 관한 그림집 청탁이었다. 동판화로 찍어내면 수천부쯤은 거뜰하다는 말에 요즘 표현대로 그랑빌의 입이 '썩 찢어졌다.'

도미에나 슈피츠베크가 그린 <책벌레>도 물론 일품이다. 그러나 그랑빌의 작품이 이들보다 앞서 미술의 역사에 고치를 벗고 깨어난 최초의 책벌레를 다루었다는 점, 그리고 벌레가 인간으로—'인간이 벌레로'라고 해야 맞나?—진화하는 극적인 순간을 포착했다는 점을 보면 그야말로 동물 패러디 분야에서 단연 '동물적인' 그의 풍자 감각을 엿볼 수 있다.

그림 설명은 하단에 친절하게 써뒀다. 대강 이런 뜻이다.

"이놈은 제가 자은 실로 책의 고치를 지어서

그 속에 쏘옥 숨는다."

고치를 치는 곤충들은 장차 번데기가 기거할 집을 어미가 짓는 게 보통이지만, 영장류 책벌레는 제집을 스스로 지었다. 하루아침에 갑각류로 변신한 게오르크 잠자도 그랑빌의 상상력이 가놓은 알에서 부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책과 한몸을 이룬 책벌레

그랑빌의 책벌레는 커다란 잠자리 안경을 걸치고 책 더미 속에 등지를 틀었다. 이런 도상은 서양미술에서 드물지 않다. 안경은 대개 박학과 지혜의 상징이지만 늘 그런 건 아니다. 때로 자신의 무지를 은닉하려는 기만적 술책이라는 부정적인 뜻도 있다. 그래서 미술사에서는 비지땀을 흘리며 책과 씨름하는 '지혜로운 박사' 유형과 한가롭게 먼지떨거나 파리채를 들고 권태와 씨름하는 '무식한 기만' 유형의 안경잡이를 구분한다.

그랑빌의 책벌레는 눈에 몹시 힘이 들어갔다. 머리카락이 바짝 곤두설 만큼. 하늘로 뻗친 머리털은 애벌레의 애뜻한 솜털 같기도 하고 영광스런 순교자의 십자가 후광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마디로 혼신의 열정과 머릿기름을 짜내서 책의 속살 깊숙이 자신의 땅굴을 파는 중이다.

책도 그의 노력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가상한 투신을 감싸기 위해 호의로운 책장을 한껏 펼쳤다. 이로써 책과 한몸을 이룬 책벌레, 그의 썩썩대는 숨결과 오래 묵은 책의 향기도 하나가 됐다. 알라누스 압 인슐리스는 이 세상을 창조주가 집필한 한편의 책에 빗뒀다. 복음서 기자들의 사



1842년, 석판화, 154×105mm, 파리 국립 도서관

상이기도 하다.

그랑빌은 신비로운 창조의 비유를 패러디의 차가운 현실로 바꿨다. 퇴조하는 낭만주의는 충동적 반이성주의와 은둔적 개인주의를 생체기로 남겨뒀다. 그랑빌은 저 홀로 박식한 책벌레들을 좋지 않게 봤다. 이웃과의 정감 넘치는 대화를 마다하고, 오로지 남덩이로 인쇄한 문자의 주술에 탐닉하는 그들에게 제 집을 찾아주고 싶었다. 그래서 단단한 고치 속의 미숙한 영혼들을 동물도감 속의 곤충편에다 분류해뒀다.

벌레들, 고치 밖으로 나와라! ●